

인도 킹피셔항공 파산위기 배경과 전망

■ 인도의 주요 민간 항공사중 하나인 킹피셔항공이 최근 재정난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함.

- 2012년 현재 킹피셔항공의 채무규모는 약 13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현재 채무 불이행 및 세금 미납 등으로 계좌가 동결된 상태임.
- o 킹피셔항공은 2005년 이후 매년 경영적자를 기록해 왔으며 2011년 4분기(12월)에도 약 9,000만 달러의 영업 손실을 입어 전년 대비 손실이 2배 증가함.

표. 최근 킹피셔항공 경영위기 주요내용

구 분	주요내용
경영적자 및 채무	- 2011년 4분기(12월) 경영손실 규모는 약 9,000만 달러 - 총 채무규모 약 13억 달러
세금미납	- 세무당국에 의해 은행계좌 동결(2012년 2월 17일) - 2012년 2월 현재 약 천만 달러 미납
파일럿 등 직원 이탈	- 재정위기로 인한 임금 지불 지연 등으로 인력 이탈 사태 발생
항공편 취소 증가	- 2월 17일 이후 총 100여개 항공편 취소(2월 21일 현재) - 저가항공권 발급 중지

자료: 언론보도내용 취합

■ 최근 킹피셔항공의 파산위기 주요 요인으로 △부실경영, △가격경쟁 심화, △높은 세율, △항공유가격 상승 등이 지적됨.

- 킹피셔항공은 2008년 사업 확장을 위해 무리한 M&A 및 항공기 대량구입을 추진 하면서 부채규모를 확대시킴.¹⁾
- 인도 내 약 10여개의 항공사 간 가격경쟁이 점차 치열해 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됨.²⁾
 - o 특히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국영항공사인 에어인디아의 저가정책이 시장을 왜곡, 킹피셔를 비롯한 인도 저가항공사의 수익성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있음.³⁾
- 또한 주정부의 높은 판매세(state sales tax) 및 항공유 가격 역시 저가 항공사의 재정압박을 심화시키고 있음.
 - o 주별로 상이한 판매세는 항공 운임료에 포함되며 최대 50%까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.
 - o 항공유 공급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최근 루피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항공 유가격이 크게 상승함.⁴⁾

1) 킹피셔는 2008년 인도 로컬항공사인 에어데칸을 인수합병 하였으며, 당시 킹피셔가 떠안은 부채규모는 약 4,800억 원에 달함.

2) 2011년 4월~9월 기간 인도 항공업계의 경영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인 약 7억 달러, 전체 부채규모는 약 16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.

3) 2012년 2월 7일자 Financial Times의 'India aviation gets as fuel lifeline' 기사 인용

4) 인도 항공사의 운영비용의 50% 이상을 연료비용이 차지하고 있으며 각 주정부는 항공유에 대해서도 약

■ 킹피셔항공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재정위기를 겪어온 다른 항공사 역시 재정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인도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.⁵⁾

- 인도정부는 항공사의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2월 22일 민간 항공사의 항공유 직접 수입을 허용함.
- 또한 그동안 금지되었던 외국항공사의 인도항공사 지분보유 한도를 49%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.

(송영철 연구원)

4~30%의 높은 세금이 부과하고 있음.

5) 인도정부는 현재 인도 모든 항공사에 대해 financial report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며,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각 항공사의 경영 문제점 파악 및 재정 위기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함.